

제 8 과: 요한계시록 19 장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가 본 축하 행사들 중 (결혼식, 스포츠팀 우승, 졸업식 등)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기도: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 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마지막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서 준비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 장 1-16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의 책을 읽으십시오.

포스트모던 영국의 낯선 신세계에서 결혼식은 여전히 아주 대중적이면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결혼을 고려하다가 자신들이 기대해왔던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연인들이 몇 년간 동거를 하는 일은 이제 예외적인 일이 아닌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식 상황에 어울리는 것을 선보이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현대의 관행에 대해 나는 애석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다. 이런 관행은 상업적 이익을 충족시키고, 결혼의 실제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맛을 예식에 가미한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나는 이것을 인간다움의 의미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고, 창세기에서 결혼은 전체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이렇게 말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계획은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일부다.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은 언제나 결혼식에서 하는 약속, 곧 기쁨 때나 슬플 때나 신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세상과 인류, 특히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합당한 반영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결혼식은 영광스러운 상징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옷과 사진, 포도주에만 시선을 두고 거기에 들어설 때에도, 결혼식은 강한 영향을 남긴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대반전의 배경에 있다. 매춘부는 심판을 받았고, 신부가 입장한다. 화려하고 현란한 바빌론 세계는 전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의 선물로 입고 등장한다. 어린양과 그의 신부의 결혼은 하늘과 땅 자체의 결혼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하늘까지 올랐다고 생각했던 옛 바벨탑에 해당하는 상징인 바빌론은 실재의 허망한 패러디였음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겠다고 제안하신 것을 순전히 탐욕으로 얻으려는 인간의 시도였다 (167-168).

이런 결혼식 개념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야훼의 신부로 보는 옛 유대교 전승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애받고, 시내 산에서 결혼하고, 여러 세대 동안 불성실하여 결국 버림 받지만, 그 뒤 다시 구애받아 온 창조 세계의 갱신을 낳을 언약 갱신에서 완전히 회복된다(사 54-55 장). 어떤 명에서 극적인 연애 시에 불과한 아가서 전체는 유대교와 기독교 주석가에 의해 공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그리스도 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보여 주는 알레고리로 여겨졌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주제가 극적인 완성에 다다르고, 또 다른 고대의 경축 주제와 합류된다. 곧 하나님의 큰 잔치, 곧 그분이 누구랄 것 없이 전부 초대하실 연회다(사 25:6-10) (169).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여러분은 혼인 잔치의 이미지가 왜 성경 속에 이렇게 거듭해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까?
2. 어떻게 우리가 신부(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혼인 잔치의 날에 아름답게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 장 17-21 절을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맞서 결정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점인 것 같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적은 항상 새로운 물결을 타고 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하는 이교도 무리와, 이교도 주군과 결탁해 순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부패시키는 이스라엘 내부의 변절자 둘 다다. 따라서 이 메시아의 과제는 성전을 갱신하거나 회복함으로써 백성들의 예배를 정화하는 임무와 나란히 진행될 것이다. 예수님이 군사 지도자가 되려는 어떤 표식도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성전을 정화하는 데 어떤 관심도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과 그 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재정의하신 유대인의 기대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보여졌는지를 망각하는 처사다. 공생애 전체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계시록 전체에서 간간이 경축했던 신념을 주요 주제로 채택하셨다. 곧 하나님 나라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메시아에게 넘어갔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왕이 되셨다!” 이런 진술은 물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진술과 직접 연결된다. 예수님이 친히 승리를 얘기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는 로마 세력에 대한 승리가 아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로마와 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올바른 목표를 놓치는 것이라는 생소하지만 강력한 암시를 주셨다. 진짜 대적은 로마를 비롯한 다른 모든 이교도 제국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었다. 예수님은 진짜 대적, 사탄, 즉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인류를

창조주 하나님께 맞서는 반역으로 이끌었던 존재와 벌이는 전투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짜 전투를 싸우는 궁극적인 길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데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다.

이 점은 현재 본문의 군대 이미지를 설명해 준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그 배후에 놓인 실재를 참으로 지시하는 상징 언어다. 이 본문이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신의 제자들 사이의 실제적인 전투를 앞서 예고하고 정당화한다고 가정하는 건 실책이다. 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에 상응하는 실재가 12 장에 묘사된 대로 머리와 뿔 등을 지닌 실제 물리적 생물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실책인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승리는 모든 이교도 권력에 대한 승리고, 폭력 자체에 대한 승리를 뜻한다. 이 상징이 적절한 이유는, 이것이 메시아의 승리를 가장 강력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승리와 관련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본문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곧 메시아가 자기 입의 칼로 열방을 심판하실 아사야 11 장, 그분이 철 지팡이로 그들을 통치하실 시편 2 편,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이사야 63 장이다. 지금쯤 요한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실제 무기는 그분 자신의 피, 사랑의 자기 희생이다.

그분은 눈물로 싸워, 전장에서 승리하시고,
그분의 벌거벗은 가슴이 방패를 대신한다.
그분이 날리는 연타는 아이의 울음이고,
그분의 화살은 슬피 우는 눈으로 만들어졌다.
그분의 전쟁 깃발은 추위와 궁핍이고,
또 연약한 육체가 그분의 전사가 모는 말이다 (172-174).

함께 토론해 볼 주제:

우리가 이 성경공부를 할 동안 미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시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교회에게 어떤 지위와 권력을 부여할 이 세상의 정치적 리더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힘에 이끌려 세상의 지도자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승리가 이 세상의 권력, 또는 어떤 군사적인 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양의 희생을 통해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왜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긴다고 생각합니까?
2.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침기도: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두며, 또 우리 세상 나라의 국적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의 소망은 당신에게 있음을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쓸어 없어짐을 당할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 되심을 알게 될 그날에 열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당신의 신부 된 교회를 아름답게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